

내가족·우리 이웃이 바로 부처님

부처님은 꼭 사찰의 법당에만 계시는 걸까? 내 남편, 내 가족, 내 이웃도 부처님이 아닐까? 정작 부처님은 "일체중생이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섬긴다면 바로 이들이 살아 있는 부처님일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족과 이웃을 부처님처럼

모시자는 사람들이 있다. 부부법회, 가정법회, 지역법회를 여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서울 불광사 불자들의 지역법회, 부산 해원정사 연꽃부부의 부부법회, 대구 칠불회 회원들의 가정법회 현장을 탐방해 부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본다.

지역·부부·가정법회 현장탐방

부부법회 해원정사 연꽃부부회

생활한복으로 통일...부부 150쌍 활동 서로 격려하며 불법공부, 자녀들 교육효과



◇연꽃부부회 지도법사 원허스님과 회원 불자들이 법회후 법담을 나누고 있다.

야 가입이 가능하다. 150쌍의 부부, 즉 300명의 회원들이 활동하는 연꽃부부회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포교한 가정 포교의 성과인 셈이다. 남편과 아내가 동반이 되고 보니, 좋은 점이 한둘이 아니라는 게 회원들의 한결같은 자랑이다.

"부부가 서로 부족한 점을 격려해주면서 불법 공부도 함께 하고, 아빠, 엄마 보면서 아이들 어릴 적부터 불법 만나니 좋고, 훌륭한 다른 회원들을 보면서 배울 수 있고..."

부부가 일상동태로 힘을 모으니 역할은 배가 된다. 연꽃부부회가 조촐하게 시작했던 경주산지는 이제 해원정사의 연례행사로 자리잡았고, 매월 심신 장애인 복지시설인 성우원 후원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과 사찰 대소사에서의 자발적 봉사와 재정적 지원은 단연 돋보인다. 내달 부터는 둘째 주 화요일마다 원허스님과 함께 생활 속의 실천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별도로 가지며 공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삼현(48) 신임 회장은 "부부가 동반으로 신생활을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며 "많은 가족들이 부처님 품안에서 단란하고 지혜롭게 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회원 배가 운동할 것"이라

부신=천미 회 기자

이래 매달 셋째 수요일 회원집을 방당삼아 순회 가정법회를 봉행해 오고 있는 대구 영남불교대학 칠곡지역 신도들의 신행모임.

칠불회는 가끔 스님을 모셔 법문을 청해 듣기도 하지만 대개 회원들끼리 반아심경, 천수경 등을 봉독하고 각자 준비해온 다과를 함께하며 신행담을 나눈다.

4월 26일, 양복을 단정하게 입은 남편과 생활 한복을 곱게 입은 아내가 나란히 부산 해원정사(주지 원허) 도량으로 들어섰다. 연꽃부부회 법회가 열리는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이면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남편과 아내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명찰을 단 사람들이 사찰 곳곳에서 눈에 띈다. 모두 부부가 나란히 사찰을 찾은 연꽃부부회 회원들이다.

연꽃부부회 보살들은 분홍빛 고운 생활한복을 단복으로 맞춰 입고 법회 전 사찰 곳곳에서 절 살림을 돌본다. 하루 종일 남편과 함께 절에서 법문도 듣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 편하기 그지없다. '이삼현-박자인화', '오주홍-이공덕심'. 한명찰에 나란히 적힌 이름들이 다정하다.

이날 정기법회 후, 거사들은 어느새 작업복으로 갈아 입고 산신각 옆 봉축 점담을 조립하고 전등을 다는 일로 비지땀을 흘렸고 보살들은 법회 뒷정리, 설거지 등 절 일을 도우며 종중결집을 했다.

10년 전 고산 스님(쌍계사 조실)의 뜻에 따라 창립된 연꽃부부회는 부부가 함께 신행 활동을 해



◇'송파 13 구법동' 회원들이 지정스님(불광사법주의)법문을 듣고 있다.

가정법회

대구 칠불회



◇칠불회 회원들이 영남불교대학 캠퍼스에서 연 특법회 모임을 하고 있다.

20대와 60대 어우러져 흥겹게 신행

"회원은 많고 집은 좁고...세분화 고려"

부처님오신날을 목전에 둔 4월 24일 칠불회 회원 30명은 영남불교대학 경주 캠퍼스를 찾아 연등 만들기 봉사를 펼쳤다. 이곳은 신도수가 적어 부처님오신날 장엄할 연등을 아직 다 만들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 이들은 사찰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손수 도시락도 장만하고 수저와 그릇까지 챙겨왔다. 작은 부부도 신행의 일부로

지역법회 불광사 법등모임

"송파 15구 법등들은 이쪽으로 모이세요. 월요일에는 성지순례를 떠날 겁니다."

4월 27일 서울 석촌동 불광사의 일요일법회. 법회가 끝나자 '송파 15구' 등 팻말을 든 불자들이 손짓을 하고 목소리를 높이며 시선을 끌기에 바쁘다. 법당 여기 저기 흩어져 앉아있던 법등 회원들을 모으기 위해서다. 팻말을 든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본 회원들이 한 곳에 모여들고 이내 모임은 대화와 웃음으로 활기가 돈다.

"대자행 보살, 몸 아픈 건 어떻게 했어요?" "고마워요. 거사님 기도 덕분에 견딜 만하네요." 나누는 대화에는 애정이 담겨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가족과 진배없다. 이들이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된 것은 모두 불광사 불광법회 '구법동' 회원이기 때문이다.

불광법회가 시작된 것은 1975년 무렵. 광덕 스님이 서울 대각사에 불자를 모아 법회를 시작한 것이 불광법회가 발족하는 인연이 되었다. 스님은 불광법회 가족들이 경조사 간에 서로 도우며 효율적으로 신심을 다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친지방 지역별 모임들을 갖게 했다.

생활지역·친밀도·연령 고려 회원모집

'법등' 단위로 조직관리...야외법회·봉사

이 모임의 기본단위가 '법등'이며, '법등'들의 모임이 바로 '구법동'인 것이다. 현재 불광법회에는 송파 15구와 같은 40여개의 구법동이 운영되고 있다. 각 구법동은 5개의 법등모임으로 구성되고 법등 모임은 상호 가까운 거주지 위주로 생활지역, 친밀도, 연령, 연륜의 등을 고려해

이 없기에 혹은 조직된다. 한달에 한 번씩 각 법등을 방문해 지역법회를 열다 보 산사에서 법회라도 자연스럽게 서로의 사정들을 알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외에도 구법동회는 봄·가을로 야외법회와 성지에서도 환영을 받는다. 순례를 다녀오고 천마재활원, 송암보육원, 자광원 등

"보통 사찰 신도회는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도 자발적으로 진행하

고 있다. 우리 칠불회는 반대로 회원 불광사 법주 지정 스님은 "불광법회 법등들의 나이가 점점 젊어지고 있어요."

실제 칠불회 회원들은 20대에서 60대가 부처님처럼 섬기고 아끼는 마음이 있지 연령층이 다양하다. 그러다보니 수십년의 기 때문"이라며 "불자들이 이런 힘

신행경력이 있는 선배 보살들은 이제 갓 입문한 을 바탕으로 소송적 신앙을 극

젊은 보살들에게 오랜 신행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 복할 때 불교가 사회의 발

해 준다. 또 젊은 보살들은 나이가 든 보살들을 극진히 모시 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고 예를 다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화합이 잘되다 보 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임의 덩치가 커지면서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다. 법당 이 바로 회원 가정집 거실인 이유로 인원이 많아서 격정이다. 그래서

모임을 동별로 세분화 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칠불회 회장 법수지 보살은 "가정법회는 가까운 이웃들이 격이 없애며 지 않고 신행이나 불교공부를 할 수 있어 좋다"며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바자회나 봉사활동 등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경주=박원구 기자

(사) 한국불교교화원 도림사 보살계 수계법회

超宗派 一佛弟子

전 종도와 사부대중의 마음을 모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정	법	원	주	지	배	구	관
극	락	정	주	지	김	정	암
송	암	사	주	지	배	송	암
홍	통	원	주	지	이지	혜	지
여	래	원	주	지	백	운	월
유	마	정	주	지	이	정	명
약	천	사	주	지	유	지	암
연	지	암	주	지	김	불	암
심	연	사	주	지	이	혜	준
무	량	사	주	지	김	덕	운
자	비	정	주	지	황	일	봉
도	림	사	주	지	정	무	염
서	울	교	원	장	배	정	길
감	사	봉	주	지	김	선	봉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6-16 / 전화 02-964-8044

(사) 한국불교교화원



도림사 보살계 수계법회

■ 삼중사 전제아사리 - 운허 스님 / 갈마아사리 - 성도 스님 / 교수아사리 - 구관 스님

稽首如空 等一痛切
唯垂加被 開我迷雲

허공과 같은 법신자리에 절 하옵고, 평등한 일심으로 간절히 임하나이다. 오직 가피를 드리우시어, 저희 미혹한 구름을 열어 주소서.

무릇 戒라고 하는 것은 惡을 없애고 善을 드러내는 기본이 되며, 凡夫를 벗어나 聖人이 되는 씨앗이라 하였습니다. 사람마다 心이 있고, 그 心에는 팔만 사천가지 한량없는 煩惱가 있습니다. 煩惱는 또 한량없는 나쁜 業을 만들어 이 煩惱와 業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生死 輪廻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戒를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生死 輪廻를 벗어나 解脫을 성취하는 지름길이 되며, 그 터전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부처님의 戒는 成佛의 계단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은 것이라 比喩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혼탁한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와 거칠고 억센 衆生心을 제거하기 위해 三寶前에 나아가 懺悔하고, 菩薩戒를 받아 지나 참다운 주인공을 밝히는 등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일 시: 불기 2547년 5월 27일(화) 오후 2시 (음 4월 27일)

■ 장 소: 도림사 큰법당 / 서울 동작구 흑석동 76-75

■ 보살계 접수: 도림사 종무소 전화 02-815-6516

보살계 수계법회 추진위원장 정성도 합장